

격려사

햇볕이 뜨거울수록 신록은 더욱 짙어지고 원력을 실천하겠다는 성실함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결실을 더욱 여물게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와 같이 오늘 사부대중은 뜻 깊고 보람있는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통도사 대중의 정진에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소외 계층을 위해 헌신의 마음으로 임하시는 방장스님과 주지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진력하는 일은, 이웃의 행복으로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아가 삶의 약자들을 커다란 원력으로 살피겠다는 것은 종단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중앙과 교구의 균형 발전을 통해 교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은 종단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불사가 이를 실천하는 뚜렷한 발걸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의 모범이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의 치유까지 아우르는 의료혜택은 현사회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는 지역 사회와 이웃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장벽을 마주하겠지만 지역주민의 염원을 생각하며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위한 일인만큼 함께하신 정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신의 마음

을 아끼지 않으시는 통도사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비로움이 싹트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고 함께하겠다는 공덕이 향기로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이신 불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모두의 발원을 담은 성취를 위해 한결같은 원력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년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